

## 윤석민, 150km 찍고 “준비 끝났다”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 한화와 연습경기 3이닝 무안타 무실점 KIA, 안타 10개 때리고도 1-2 역전패

“준비는 끝났다.” KIA 타이거즈 에이스 윤석민이 두 번째 연습경기 등판에서 150km를 찍으며 시험가동을 끝냈다.

5일 치타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 선발로 출격한 윤석민은 피안타 없이 볼넷 두 개만 내주며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직구 구속은 150km를 기록했고, 슬라이더·커브·체인지업 그리고 팜볼을 던지며 5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윤석민은 1회 첫 타자 양성우를 스트레잇 볼넷으로 내보내며 출발했지만 이대수의 희생번트 이후 강동우와 연결을 각각 투수 앞 팜볼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이닝을

마무리했다. 탈삼진 두 개를 포함해 2회를 삼자범퇴로 막은 윤석민은 3회 2사에서 다시 양성우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이대수를 상대로 다섯 번째 탈삼진을 뽑아내며 전지훈련 두 번째 등판을 마쳤다.

윤석민은 “첫 등판때도 그렇고 오늘도 컨디션이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슬라이더보다는 직구 위주로 던져왔다. 커브도 많이 구사했는데 절반 정도는 들어갔다. 카운트 잡는 일이 어렵기는 했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자신의 피칭을 평가했다. 또 “지난해 최고의 시즌을 보내며 바빴었다. 행사들도 많고 시

작이 조금 늦었을 수도 있지만 150km까지 던졌으니 몸 준비는 다 끝났다. 앞으로 시범경기를 통해서 세부적인 것을 가다듬으면 될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140km가 넘는 고속 슬라이더를 비롯해 커브·체인지업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팔색조로 통하는 윤석민은 이날 팜볼까지 던져보며 전력 점검을 했다. 3회 이화준을 상대로 팜볼을 던져 삼진을 잡아낸 뒤 3회 양성우의 타석에서도 팜볼을 구사했다.

2008년 윤석민은 나흘로 팜볼을 연마한 뒤 실전에 바로 선보여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었다. 전적으로 통했던 당시 한화의 이범호를 상대로 팜볼을 던져 삼진을 잡아냈었다. 윤석민은 “실전에서 쓰지는 않을 것이다”고 웃었지만 팜볼은 올 시즌 깜짝 무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경기는 타선의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며 1-2, KIA의 역전패로 끝났다. KIA는 10개의 안타를 때려냈지만 3개의 병살타를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윤석민의 호투에 이어 좌완 진해수가 깔끔한 피칭을 선보이며 선 감독의 마음을 달래줬다. 진해수는 2이닝을 삼자범퇴로 막아내며 3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선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분위기가 많이 어둡다. 눈치 보지 말고 즐기면서 야구를 하라”고 선수단에 대해 주문했다.

/wool@kwangju.co.kr



KIA 윤석민이 5일 오키나와 치타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 선발로 출격해 공을 던지고 있다.

## 한대화 감독 ‘호랑이 약올리기’

KIA 덕아웃서 입담 과시 ... 코치들 가슴에 불질러

한화와의 연습경기가 열린 5일 KIA 덕아웃은 어느 때보다 시끌시끌 분주했다. 공 하나하나에 탄성과 응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실전 경기 못지 않은 분위기였다.

KIA 입장에서는 꼭 잡고 싶었던 경기. 앞선 2일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 KIA는 노히트노런패의 수모를 당했다. 연습경기라고

하지만 KIA에게는 자존심이 상한 경기였다. 경기가 끝나고 선동열 감독의 불호령이 떨어지면서 선수단은 구보로 속도로 이동하기까지 했다.

반면 적장 한대화 감독(사진)은 느긋한 모습으로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한화가 KIA에 유독 강했던데다 연습경기에서 노히



트노런 승까지 기록한만큼 여유가 넘쳤다. 경기를 앞두고 KIA 덕아웃을 찾아 특유의 입담을 과시하기도 했다.

한 감독은 “전지훈련 막바지니까 KIA기 살려주려고 선발 유창식을 냈다”며 오더 교환 전 선발투수까지 깜짝 공개했다.

“제일 공 좋아지고 있는 투수를 내면서 무슨 소리시냐”는 이견열 타격 코치의 핀잔에는 “KIA가 오른손 타자들이 많으니까 좌완을 낸 건데, 시간 있으니까 오더 바꿔”라는 농담을 하며 웃었다.

한 감독은 또 “코치들도 경기 끝나고 같이 뛰었나? 코치 시절에 나도 같이 뛰었던 적이 있는데, 경기 끝날 때까지 노히트노런을 한 줄도 모르고 있었네”라고 돌아서며 타자들의 헛방망이질에 속이 까맣게 탔던 이 코치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질렀다.

경기가 끝난 후 이번에도 패배팀 타격 코치가 된 이 코치는 “한화가 우승후보네”라며 쓸쓸히 짐을 썼다. /wool@kwangju.co.kr

## LG 박현준·김성현 모든 야구활동 정지

KBO, 경기조작 사과



프로야구 경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LG 트윈스 소속 투수 박현준(26)과 김성현(23)이 당분간 야구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두 선수에 대해 일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야구규약 제144조 3항은 물의를 일으켜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한 선수에 대해서는 야구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현준과 김성현은 훈련은 물론 시범경기·정규리그 경기 등 구단 활동에 일절 참가할 수 없다.

또 그 기간 참가활동보수도 못 받는다. 김성현은 브로커로부터 ‘첫 이닝 고의볼넷’ 등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의 배팅 항목에 대한 조작 부탁을 받고 기록 조작에 가담한 뒤 수백만원 가량의 사례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2일 검찰에 출석한 박현준은 조사가 끝난 뒤 귀가했으나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안겼다.

KBO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나는 선수에 대해 똑같이 제재하고, 추후 해당 선수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상벌위원회를 따로 열어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KBO는 “그간 프로야구를 사랑해 준 모든 야구팬과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사건 관련자는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22세 매킬로이 골프황제 등극

우즈 누르고 PGA Honda클래식 우승 ... 세계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22·북아일랜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Honda클래식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남자골프 1인자의 자리에 올랐다.

매킬로이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 가든스의 PGA 내셔널 챔피언십코스(파70·7천15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침착한 경기운영으로 12언더파 69타를 쳤다.

이로써 1~4라운드 합계로 12언더파 268타를 적어낸 매킬로이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8타를 줄이며 맹추격한 타이거 우즈(미국·10언더파 270타)를 2타 차로 따돌렸다. 우승 상금은 102만6천 달러.

PGA 투어에서 세 번째로 우승한 매킬로이는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세계랭킹에서 1위를 지켰던 루크 도널드(잉글랜드)를 밀어내고 생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40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지킨 도널드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매킬로이가 2타 차 단독선두로 4라운드를 여유 있게 시작했지만 우즈의 반격이 매서웠다.

매킬로이에 9타 뒤진 우즈는 이날 2개, 버디 4개를 쓸어담아 8언더파 62타의 맹타를 휘두른 뒤 먼저 경기를 끝냈다.

반면 매킬로이는 바람 때문에 아이언샷 거리를 잘 조절하지 못해 전반에 버디 1개에 그치는 등 타수를 많이 줄이지 못했다. 후반에도 12번홀과 13번홀(이상 파4)에

서 각각 보기와 버디를 맞아줘 타수를 줄이지 못한 채 ‘베어 트랩(16~18번홀)’으로 들어갔다.

코스를 개조한 잭 니클라우스(미국)의 별명을 딴 베어 트랩에서 매킬로이는 다소 고전했다.

하지만 작년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을 눈앞에 두고 무너졌던 매킬로이가 아니었다.

매킬로이는 16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으로 그린에 올린 볼을 침착하게 2퍼트로 마무리했다.

17번홀(파3)에서 티샷이 그린 뒤 벙커에 빠졌지만 벙커샷으로 홀 1.5m에 붙어 파로 막은 뒤 18번홀(파5)에서는 욕심내지 않는 코스 공략으로 타수를 지켰다.

매킬로이는 “우즈가 추격해 오는 것을 알고 힘들었다”면서 “오늘은 파플레이만 하면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즈는 17번홀에서 10m가 넘는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집어넣는 등 무척 절정의 퍼트 감각을 보였지만 3라운드까지 벌어진 타수 차가 너무 컸다.

우즈는 톱 길리스(미국)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우즈가 이번 대회에서 기록한 합계 270타는 2009년 BMW 챔피언십(19언더파 265타)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이다.

한국 선수 중에는 양용은이 1오버파 281타로 공동 30위에 올랐을 뿐 다른 선수들의 성적은 좋지 않았다. /연합뉴스

◀ “이제 내 세상” 로리 매킬로이가 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 가든스의 PGA 내셔널 챔피언십 코스에서 끝난 Honda 클래식에서 우승을 확정짓고 환호하고 있다. 매킬로이는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